

문 의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과 장 김기범 042-481-5460 사무관 박미경 042-481-571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7년 3월 15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3월 14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더 많이 듣는 특허행정을 위한 특허행정모니터단 출범

- 특허청, 「특허행정모니터단」 발대식 개최 -

국민의 관점에서 특허행정 절차와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특허행정모니터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14일 13시 30분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 센터에서 특허행정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총 30명의 모니터를 위촉했다.

특허행정모니터단에는 기업 특허담당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담당자, 지식재산학 전공 학생 등 지식재산 관련 종사자들이 골고루 참여하여 지재권 절차와 관련한 일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모니터단은 오는 2018년까지 약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출원·등록 제도, 전자출원 시스템 등 특허행정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활동과, 특허청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민·관 쌍방향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니터단에 참여하게 된 특허고객상담센터 상담원 이은혜(33)씨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그간의 상담 활동을 통해 접했던 고객의 소리를 특허청에 전달하여, 특허청과 고객 사이의 제도나 절차에 대한 이견을 최소화 하는 데에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는 김아름(37)씨는 “절차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망설이는 학생들을 대변하여 특허행정 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허청은 원활한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소통과 함께 특허청 주요행사 초청 및 간담회 개최 등 활발한 의견 공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활동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상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모니터단원의 활발한 제안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민희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행정의 든든한 파트너인 특허행정모니터단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